

부고시절 배운 ‘영어와 삼각함수’는 내 수호천사



‘영어와 삼각함수.’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 삶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인생의 고비 고비 마다 곁을 지켜줘 내겐 ‘수호천사’나 다름없다.

삶의 ‘공식’을 가르쳐주신 분은 고등학교 시절 김창하 선생님이다.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어디서 구하셨는지 영어로 된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했다. 훗날 영어에 주눅들지 않고 말하고 쓸 수있게 된 건 오로지 선생님 덕분이었다. “영어와 수학, 화학 세가지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되뇌이셨다. 선생님 말씀이 나를 미국으로까지 이끌줄이야 그땠 상상도 못했지만. 언젠가 저 세상에서 만나뵙게 되면 ‘고맙고 또 고마웠다’는 인사를 전해야겠다.

서울공대 1학년 재학시절 육이오가 났다. 영어와의 첫 대면은 아이러니컬 하게도 전쟁통에서였다. 피란길에 만난 미군장교가 내게 통역자리를 제의한 것. 미 제 7사단 31연대. 거의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기억 한 자리에 자리잡고 있다. “영어할 줄 아느냐”는 미군장교의 질문에 “저스트 어 리틀 빗(just a little bit)”이라고 말해주자 그 자리에서 채용됐다.

그 뿐이 아니었다. 한국인 노무자들을 통솔하려면 계급장이 있어야 한다며 ‘중위’를 달아줬다. 허리에 권총까지 채워주고,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미군장교’로 신분이 급상승했다. 그 생활도 오래가지 않았다. 최전방에까지 가서 통역노릇을 하려니 위험하기 짝이 없었다. 목숨은 하나 뿐인데. 다시 피란민 대열에 끼어 남쪽으로 내려왔다.

그때 우연히 육군본부 공고문에 눈길이 갔다. 운명이라고 해야할지. ‘포병장교 모집.’ 눈에 확 들어왔다. 잠깐이나마 ‘미군장교’도 해 봤는데. 나이를 두 살이나 속여 응시했다. 시험과목은 ‘영어와 삼각함수.’ 내겐 ‘식은 죽 퍼먹기’였다. 갑종장교 19기로 당당히 합격한 나는 수도사단 포병 관측장교가 됐다. 포병출신이라면 관측장교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한지를 알 터. 포 사격을 유도하려면 적진 아주 가까이 가야 한다. 그러니 생명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고급장교들은 후방에서 ‘핑까핑까’하는데 내 처지가 참으로 초라했다. 그래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복무에 충신했다. 그런 내게 정부가 보상을 해줬다. ‘충무무공훈장’을 받은 것.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 꿈에 그리던 미국 연수. 그것도 두 차례씩이나. 시험과목 역시 ‘영어와 삼각함수’였다. 그렇게 미국과 연을 맺었다. 두번 째 연수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당시 준장)과 만나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내겐 지금도 애국심과 민족정신이 투철한 분으로 입력돼 있다. 훗날 그가 대통령이 되자 내게 ‘무조건 들어오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그 지시를 ‘거부’했다. 그때 만일 귀국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글썄~.

대위로 예편한 나는 조폐공사에 취업했다. 시험과목 또한 ‘영어와 삼각함수.’ 참으로 끈질긴 인연이 아닌가. 조폐공사 시절은 내겐 악몽 그 자체였다. 미국행을 결심한 계기가 됐으니 말이다.

당시 모두 14명의 신입사원을 뽑았던 걸로 기억한다. 응시 자격은 공대졸업자와 군필자로 제한됐다. 입사하고 보니 부정이 군대보다 더 심했다. 공대 출신은 극소수, 심지어 군미필자도 여럿 됐다. 결국 내 ‘입방정’이 탈이 됐다. 공정치 못한 처사에 항의했다가 그만 ‘쫓리고’ 말았다. 그것도 군기피자로 내몰려, 무공훈장까지 받은 장교에게 누명을 씌우고 치욕을 안긴 대한민국이 저주스러웠다.

군복무 시절 두 번이나 밟았던 미국 땅. ‘아메리칸 드림’을 결심했다. 그 때가 1965년. 미국행 비행기에 올라타고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가진 돈은 달랑 45달러. 막상 LA에 오고나니 막막했다. 빌딩 청소 등

막노동을 하며 1년 여름 거지들과 섞여 '흙리스'로 살았다.

처음 잡은 일자리가 '플린트코트(Flintkote)'라는 종이회사다. 몇 블럭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엄청 컸다. 기능공으로 들어갔는데 운 좋게 사장 눈에 띄었다. 당시 종이에 군데군데 구멍이 뚫리는 등 하자가 생겼는데 아무도 원인을 발견 못한 걸 내가 찾아냈다. 조폐공사 시절 경험을 되살려 문제를 해결해 낸 것이 '발탁'의 계기가 된 것이다.

월슨 하비. 사장 이름이 지금도 또렷하게 떠오른다. 하버드 출신의 변호사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이젠하워의 부관을 지냈던 분이다. 어느날 사장이 내게 "미국 대학에서 더 공부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뿔뿔이 기뻐했으나 먹고 살기 조차 버거운데 무슨 공부~. 사장이 내 마음을 읽었는지 "봉급은 그대로 줄테니 너는 그저 공부에만 전념하라"는 말을 덧붙였다. 그때의 감격이란. 내게 미국은 마음이 넉넉한 그런 나라였다.

내게 평생직장은 LA카운티 위생환경청(Sanitation District)이다. R&D 담당 엔지니어가 돼 드디어 내 원래 전공을 찾은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은 좇는 자에게 문이 열려있다고 했는가. 이곳에서도 다시 공부할 기회가 찾아왔다. 사학 명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에서 시빌 엔지니어링으로 박사학위를 땀다. 내 돈 한 톨 안 들이고 정부 돈으로.

하지만 내겐 박사 보다 더 소중한 자격증이 있다. 그 어렵다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PE). 시빌 엔지니어링과 매뉴팩처링 엔지니어링 두 부문에서다. 정부기관에서 내가 PE라고 하면 다들 경의를 표한다. 그 만큼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카운티 근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메이저 석유회사인 모빌에 벌금을 물린 '사건'이다. 1970년대 말 토렌스를 비롯한 인근지역 주민들이 아무 이유없이 설사 구토에 시달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카운티의 연구인력이 총동원됐으나 도무지 단서를 잡을 수 없었다. 내 생각엔 모빌이 주범인 듯 했으나 물증이 없었다.

궁리 끝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에 헬기 지원 요청을 했다. 내가 PE라고 신분을 밝히자 선뜻 헬기를 보내

줬다. 밤낮으로 정유소 주변을 비행하며 사진을 찍었다. 결국 꼬리가 잡혔다. 모빌이 밤에 몰래 유해 산업폐기물을 방출하는 현장을 잡아낸 것. 결국 거대기업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내겐 '부업'이 하나 있다. 커뮤니티 칼리지인 LACC에서 야간 클래스를 맡아 수학을 가르쳤다. 그땐 미국 대학 학위가 없었는데 그래도 칼리지 측이 내 실력을 인정해 선뜻 자리를 내줬다. 무모한 도전이기도 했지만 동양인에 차별없이 기꺼이 기회를 준 대학 측의 처사가 고마울 뿐이다. 처음엔 학생들 앞에 서기가 두려웠으나 용기를 냈다. 김창하 선생님을 떠올리니 자신도 모르게 힘이 불끈 났다. 낮에는 카운티 엔지니어, 밤에는 칼리지 수학선생. 그런 '이중생활'을 무려 27년 동안이나 했다면 누가 믿을까. 미국선 노력하면

만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지 않나 싶다. 돈에 대한 집착보단 성취욕이 더 앞섰다고 자부한다.

카운티에서 정년퇴직한 후 평생의 꿈이었던 나만의 연구소(Standard Testing and Engineering, Inc.)를 차렸다. 돈을 더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연구소를 꾸렸다. 하수도 부식과 방지, 토양 조사, 산업폐수와 관련한 연구에 집중했다.

이제 내 나이도 '졸수'(90세)에 가까워온다. 지난해말 연구소를 닫을 요량으로 클라이언트 회사들에 서비스 종료 편지를 보냈으나 '항의'가 빗발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다. 그래도 내가 잘못 살아온 삶은 아니구나 싶어 한편으로 내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진다.

미국에 동지를 틈 지도 반세기가 훌쩍 넘는다. 미국은 인종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누구에게나 공평하며 정직, 근면, 노력하는 사람에겐 꼭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나라다. 지난 내 삶이 이를 입증해준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내 삶의 파트너가 된 '영어와 삼각함수'. 어쩌면 훗날 '강'을 건널 때까지 부고, 부고, 부고를 외울지도 모르겠다.

정리 | 박용필(18회)

충무무공훈장 받은 장교에 병역기피 누명 박사학위보다 소중한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 미국유학시절 미군장교부인들과 함께.